

한국 선진 관세행정,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에 전한다

-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10개국* 10명)하여 6월 16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 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인천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최근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인공지능(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하여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원활하고 우호적인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책임자	과 장	김인순 (041-410-8530)
		담당자	사무관	김성식 (041-410-8555)